

## 부 고

메리 제시카 MARY JESSICA 수녀

ND 4647

캐롤 앤 칼린저 Carol Anne KARLINGER



미국,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36 년 2 월 1 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55 년 8 월 16 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24 년 2 월 24 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4 년 2 월 29 일 샤든 부활 묘지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

빅터와 앤(페즈더츠) 칼린저의 외동딸인 캐롤 앤은 부모님의 애정의 중심이었다. 두 사람의 가정에서 사랑은 세월이 흐르면서 피어나고 더욱 강해졌다. 올리버 해저드 페리 초등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캐롤 앤은 특출한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캐롤 앤은 고등학교 과정을 위해 클리블랜드의 노트담 아카데미에 진학했고, 세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토론 팀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수녀들과의 교제와 교우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도 생활에 대한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 캐롤 앤은 1953년 2월 2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본당에서 청원자로 입회했고, 작복하면서 메리 제시카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녀는 사우스유클리드에 있는 노트담 대학에서 사회학과 영어 학사 학위를,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에 있는 노트담 대학교에서 유럽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버지니아주 미들버그에 있는 노트담 인스티튜트에서 종교 교육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메리 제시카 수녀는 자신과 학생들 모두의 배움을 위해 헌신했던 훌륭한 교육자였다. 수녀의 혁신적인 수업 방식은 때때로 역사와 시사를 통합하여 고도의 학생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각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수녀의 인식은 사회 정의에 대한 평생의 헌신의 토대가 되었다. 수녀는 역사를 살아 숨 쉬게 하려는 노력으로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받으며 기억되고 있다.

1989년 메리 제시카 수녀는 1874년부터 1924년까지의 미국 코스펠드 노트담 수녀회 역사를 연구하고 집필하는 사도직을 받았다. 수녀는 초기 수녀들이 가져온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연구를 통해 우리 수녀회의 독일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와 마리아 익나시아 수녀, 엘링 신부와 베르나르드 오버베르그 신부는 수녀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몇 년 전에 책의 초고를 완성했지만, 수녀는 그 초안의 정확도와 완성도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수녀는 창설자와 공동 창설자의 삶, 베르나르드 오버베르그의 영적, 교육적 영향력 등 초대 수녀들의 돌봄의 문화를 노트담의 모든 수녀들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글을 다듬기 위해 노력했다.

육체적 건강이 쇠약해졌지만 힘이 닿는 한 계속 일했다. 수녀의 통찰과 글은 전 세계 수녀회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는 메리 제시카 수녀의 사랑의 헌신과 인내심에 감사드린다. 수녀는 신앙이 충만하고 신실한 노트담 수녀였다. 하느님과 수녀회에 대한 수녀의 사랑은 수녀의 삶의 중심이었다. 평화의 안식을 누리길!